

한전, 에너지 밸리 유치기업 500개 돌파...1단계 목표 달성

누적 501곳... 투자 금액 2조·1만1천개 일자리 창출 내년 광주·전남도 협력 2단계 '질적 성장' 추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에너지밸리' 유치기업이 500개를 넘겼다.

한전은 1단계 유치 목표를 100% 달성했으며, 내년부터 시작하는 조성 2단계에는 광주·전남도와 협력해 '기업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 '양적 성장'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에너지밸리추진실'을 운영해 한전은 오는 2025년부터는 자치단체에 이 역할을 이관할 계획이다.

25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36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유치기업은 누적 501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세운 1단계(2020년) 목표를 100% 달성한 수치다.

한전은 광주시, 전남도, 한전KDN과 협업체이 지난 7~11월 국내 유일 리튬이온전 배터리 셀 제조업체인 ㈜씨애플파트너와 해상풍력 연구개발 및 제조 연구소기업 ㈜구조실협네트워크 등 36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체결에 참여한 유치기업들의 투자금액은 1235억원 상당으로, 이와 함께 53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한전 측은 내다봤다.

에너지밸리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에 에너지 신산업 위주의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구축하는 '스마트 에너지 허브'다.

한전이 지난 2015년부터 5년여 동안 유치한 기

업은 총 501개사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전체의 78%(393개사)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신산업 51%(259개사), 전력 정보통신기술(ICT) 27%(134개사), 전력기자재 22%(108개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투자 협약금액은 2조1596억원에 달하며, 1만1158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과 자치단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전화와 화상상담 등 비대면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전은 에너지밸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 제한 경장을 통한 우선구매 ▲우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사업 ▲핵심역량을 활용한 연구개발(R&D)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

원하고 있다.

특히 한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탁형 이자 지원제도'를 활용해 유치기업의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제도는 한전이 예탁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 에너지밸리 기업 대출이자를 감면하는 데 쓰인다.

올해는 한전이 에너지밸리 '양적 성장'을 마무리하는 해이다.

내년부터는 기업 유치 목표를 따로 세우지 않고 2단계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는 뜻이다.

2단계에서는 한전과 지자체·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해 많은 기업이 실제 투자를 실행에 옮기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을 유치할 때 한국형 뉴딜(K-뉴딜)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신재생 및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로 유치기업을 다각화하고, 차세대 전력산업 선도 기업을 데려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소특구 및 예

너지융합단지 지정과 시범·인증기관 기술지원 환경 조성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2022년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한전에너지 신기술연구소와 '산·학·연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한전은 오는 2025년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기 위해 '기업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에너지신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에너지밸리의 질적 성장은 조성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된 현안이다. 지난 달 신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은 569개 업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직접 생산 승인 업체는 25.8%에 불과한 147곳으로 나타났다"며 "한전이 자치단체, 산단협의회 등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입주기업의 지역우선구매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5월 정신 기린다"

공익형 '넋이통장' 출시...수익금 절반 5·18 재단에 기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오월정신을 기리는 공익형 금융상품이 나왔다.

광주은행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통장인 '넋이-5월, 그 날을 기억하며'를 최근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통장인 이 상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이날 넋이 통장 '1호 가입자'로 나섰다.

'넋이통장' 앞면은 옛 전남도청 모습을 담았다. 통장 속지에는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자리에 위치했던 시외버스 공용터미널과 국립 5·18 민주묘지, 5·18 민주광장, 전일빌딩 등 5·18 사적지가 차례로 실렸다.

'넋이통장'은 오는 2021년 4월 말까지 판매된다. 이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 50%는 오는 내년 5월18일에 5·18 기념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넋이통장'은 개인 및 법인고객이라면 광주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송 행장은 '넋이통장' 1호 가입을 하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1980년 5월의 아픔과 성장을 기억하며 지역민과 함께 의미를 나누고, 함께 나눈 의미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에 공감하고, 지역민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품으로 고객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5일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출시한 '넋이통장' 1호 가입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1.54 (-16.22)
↓ 코스닥	865.12 (-6.98)
↑ 금리(국고채 3년)	0.971 (+0.008)
↓ 환율(USD)	1108.90 (-3.80)

사학연금 사회적가치 사례 발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25일 나주 혁신도시 한전KDN 빛가람홀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확산 포럼'에서 사회적가치 확산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사학연금은 지역 특산물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 사례와 ▲주민친화적 문화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사회통합을 위한 '저소득 재능아동을 위한 장학지원'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우수사례 발표에는 사학연금과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참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경단녀' 비율 전국 평균 상회

올해 4만9천명 일 그만 뒤

올해 광주지역 경력단절 여성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경력단절여성 현황'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항목)에 따르면 전국 15~54세 기혼여성(857만8000명) 중 경력단절 상태인 여성 비중은 17.6%로 집계됐다.

기혼여성의 6명 중 1명 꼴은 육아와 결혼 등으로 일을 그만뒀다는 말로, 전국의 경력단절 여성은 150만6000명이었다.

취업하지 않은 여성 수는 342만명이었다.

지역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비중이 광주 19%, 전남 16.6%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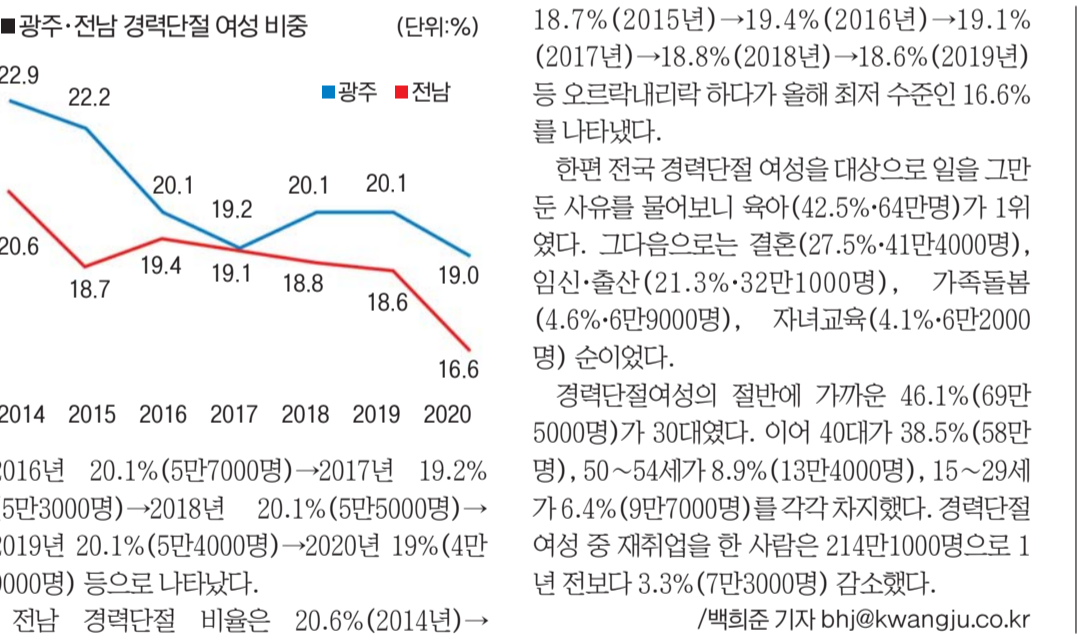
광주지역에서는 15~54세 기혼여성 25만8000명 가운데 4만9000명이 일을 그만뒀고, 전남에서는 26만5000명 가운데 4만4000명이 경력에 끊겼다.

올해 광주 경력단절 여성 비중은 전국 평균(17.6%)을 넘었고, 대구(22.2%), 세종(21.1%), 울산(21%)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

최근 7년 동안 지역 기혼여성에게 해마다 줄면서 경력단절 여성 비중 역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광주 기혼여성 수는 1년 전보다 1만명 줄었고, 전남은 1만4000명 감소했다.

광주지역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2014년 22.9%(6만8000명)→2015년 22.2%(6만4000명)→



광주 콘텐츠 창업기업 '청중평가'

광주 콘텐츠 창업기업(스타트업) 16곳이 청중평가단으로부터 자신들의 사업안을 평가받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남구 양림동 복합문화공간 '10년 후 그라운드'에서 '광주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서밋'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대회에 참여하는 지역 16개 업체는 이날 자신의 창업안을 발표한다. 사전 신청을 통해 구성된 30명의 청중평가단과 전문가가 우승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500만원이다.

이외 방송에 스포츠편지 대표 특강과 참여 업체 간 교류 시간이 진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